

이야기 시리즈 12

하이에크 이야기 I

민경국 지음



훔 어 보 기

『하이에크 이야기 I』에서 우리가 들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20세기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는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적인 사회철학 이야기는 시장경제 및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인간들이 질서를 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질서 이외에 질서를 잡겠다는 의도 없이도 생성되는 질서, 즉 자생적 질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문화적 진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이에크 이야기 II』에서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와 함께 자유경제와 그리고 더 넓게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회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하이에크의 이야기는 이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타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의 본성을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오류가 능하며 불완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무지하고, 이런 무지는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제 인간일 수 없다.

인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단 말인가?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인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규칙(행동의 규칙성)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행동규칙은 복잡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경우, 복잡한 사정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 행동규칙들은 구조적 무지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행동규칙이 필요 없다. 법도 필요 없다.

인간들이 따르는 행동규칙들은 도덕규칙, 전통 및 법규칙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들의 특정 행동방식을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이 이러한 행동규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하이에크는 이것을 하나의 질서형태로서 자생적 질서라고 부른다.

자생적 질서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국가가 경제를 간섭해야만 경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에서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또는 신을 연상했던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와 대비시켜 인위적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인위적 질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질서를 조직질서라고 부른다. 조직질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미리 작성한 계획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배정하는 간섭주의 경제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조직질서처럼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인 집단적인 목적을 위한 질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삶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질서와 같은 간섭주의 경제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고, 그것은 지배-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는 무조건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들이 특정한 행동 국면을 금지시키는 행동규칙(종교규칙, 도덕규칙, 관습이나 관행과 같은 전통적인 행동규칙 및 법규칙)을 지킬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은 이와 전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특정의 행동을 개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명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의 목표, 즉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는 개개인들이 어떠한 정신에 의해서도 한 장소로 모아 놓을 수 없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동시에 그것은 가격시스템을 통하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질서이다. 따라서 조직질서와 같이, 간섭주의적인 경제질서와는 달리 자생적 질서는 그 구성원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는 질서이다. 왜냐하면 자생적 질서의 시장시스템은 개개인들의 계획을 세울 때에 사용된 지식이 옳으나 그르냐를 판명해 주는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시장시스템은 가격시스템을 거쳐 개개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정해 준

다. 이로써 개개인들이 가진 지식의 오류를 가려내 주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통제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관료들에 의한 통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는 오류 투성이의 지식을 기초로 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차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시스템에 의한 통제는 오류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지 않고 평등하다. 이와 같이 자생적 질서는 구성원들이 가진 지식의 오류를 밝혀주고,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해야 할 압박을 그들에게 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명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시스템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식의 오류를 제거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테스트하고, 성공적인 지식을 확산시키는 “발견적 절차”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시장시스템은 내생적인 잘못된 변화들을 억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열린 사회로서 자생적 질서는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한 현실성이 있는 질서이다. 이것은 결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위적 질서 사상은 인간이성에 의해 사회질서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사상은 이성을 과대평가한다. 본능에 기초한 질서는 자연적 질서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소망과 심리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의 중간에 있는 자생적 질서는 본능과 이성의 중간에 있고, 이 중간에는 문화적 진화사상이 존재한다.

문화적 진화란 무엇인가? 하이에크에 있어서 문화적 진화이론은 문화적인 행동규칙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다룬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들, 즉 도덕규칙, 종교규칙, 관행과 관습과 같은 전통, 그리고 사법규칙들(민법과 형법)은 자생적 질서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닌,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이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문화적으로 전달된다.

하이에크는 인류사회가 폐쇄된 원시사회로부터 열린 자생적 질서로 진화되는 과정을 문화적 진화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적 진화과정은 행동규칙의 형성과 모방 및 선별과정의 상호작용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선별과정인데, 하이에크는 문화적 진화에서 도덕규칙이나 전통 및 종교규칙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인구의 번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러 가지 행동규칙들 중에서 인구의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규칙들이 선별된다는 것이다.

연대 모럴과 같은 원시사회의 모럴이 도태되고 소유권 모럴, 계약의 충실성, 책임원칙과 같이 열린 자생적 질서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규칙들이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선택된 것은, 이 도덕규칙들은 이들을 채택한 그룹의 번영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인

구증가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존립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도덕규칙들의 보유와 전달인데, 거대한 열린 사회의 기초인 도덕규칙들을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이 기독교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소유권 모럴과 가족 모럴을 시인하고 또한 이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구약성서의 “너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리라” 하는 문구는 바로 문화적 진화의 선별기준을 구현한 것이다.

1. 하이에크는 어떤 인물인가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1899년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1992년 3월 23일 독일 프라이브르크에서 93회 생일을 맞기 직전 세상을 떠났다. 그가 70여 년간 왕성한 집필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대학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철학을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정립한 20세기 위대한 사상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이에크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기독교 성서에도 위대한 예언가와 보잘 것 없는 예언가가 등장하는 것처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위대한 수상자가 있는가 하면, 보잘 것 없는, 이름없이 사라진 수상자도 있다. 예컨대 누가 오늘날 아직도 사이먼 쿠즈네츠, 와슬리 레온티에프, 테오도어 솔츠 등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니 하이에크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군나르 미르달을 오늘날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하이에크는 위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다. 그를 인용하는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에크에 관한 연구서적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는 성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예언가들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다. 예컨대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다. 그는 이 멸망의 위험성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애가』로써 이들을 격려했던 것이다. 위대한 사상가 하이에크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멸망을, 또한 사회를 인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식의 남용과 그 타락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장이 그의 1944년 저서 『노예의 길』과 마지막 저서인 1988년 『치명적 자만』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성서의 중요성을 지식인들에게 갈파했던 것처럼, 하이에크는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다. 이 가르침은 1960년 그의『자유헌정론』것이다.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그는 자유주의를 이론적 및 정책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키면서 다양한 반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위대한 사상가 하이에크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하여 쓰러져가는 자유주의를 구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하이에크는 결코 정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바로잡지 않

으면, 그 밖의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정치라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려는 사고방식을 고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집필과 강연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 정치가 관료, 그리고 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다.

하이에크는 위대한 자유주의 사회철학자였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상가의 가정환경을 보면 이상스럽게도 그의 집안은 사회과학을 추구하는 집안이 아니었다. 그의 조부는 비엔나 대학의 조류학자였고, 그의 부친은 의사였다가 나중에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었다. 하이에크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분은 해부학자, 다른 한 분은 화학자였다.

사회과학 및 사회철학은 그의 외가와 관련이 있다. 그의 외조부는 인스브르크 대학의 공법학 교수이자 통계학자였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통계국장이 되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먼 외가 친척(외사촌)이었다.

어쨌든 하이에크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관용과 솔직함을 미덕으로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의 가정은 가톨릭을 믿는 집안이었다. 그러나 사회철학에 대한 그의 집념은 그의 정규교육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 즉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와 경제를 조직하려는 노력이 지배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는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을 옮겨다니면서 교육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강연을 통하여, 그리고 왕성한 집필활동을 통하여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의 귀중함을 그리고 자유를 수호할 것을 역설했다.

드디어 위대한 사상가 하이에크는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1992년 93세의 일기로 독일의 프라이브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말이다.

위대한 사상가는 독특한 세계관이나 혹은 개척자적인 모델 구상을 통하여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사유를 정한다. 하이에크 자신을 금세기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고,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사상을 생생히 살아있는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그의 독특한 사회철학적 세계관이다. 그의 독특한 세계관의 핵심적 요체를 구성하기 위해 그가 제기한 문제, 그가 일생동안 해결하기 위해 온 정열을 쏟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둘째, 자생적 질서는 무엇인가
셋째, 문화적 진화란 무엇인가
넷째, 왜 개인적 자유가 중요한가
다섯째,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여섯째, 민주주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이 문제들은 사회과학 및 사회철학이 생성된 이래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에 분주한 보통사람들의 머리 속으로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쳐가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70년 동안 집필한 그의 저작들의 내용은 이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이에크 이야기 II』에서 마지막 세 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 대신 『하이에크 이야기 I』에서는 먼저 앞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한다.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한 하이에크의 이야기는 주로 인간들의 사회질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또 그것이 인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질서의 종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질서의 진화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자유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2.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주의에서 찾는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제 몫 찾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타주의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타주의냐 하는 문제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주의나 또는 이타주의에서 찾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이기주의적 또는 이타주의적 행동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타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성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항상 불완전하고, 언제나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 전부와 비교한다면, 지극히 미미할 정도로 작은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인간은 무지하다는 사실만은 불변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무지는 인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는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기업인들 그리고 정치가나 관료, 학자도 마찬가지로 ‘무지’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지식과,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암묵적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암묵적인 지식이다. 이 지식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은 실용적 능력을 결정한다. 예컨대 피아노 연주, 당구치기, 운동선수들의 기교와 재주, 순발력, 기업가들의 착상력, 지도력,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수완 등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대부분 암묵적 지식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지식은 타인들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지식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과정에서 갈고 닦아 스스로 터득한 지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암묵적 지식도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시적 지식, 즉 언어로 표현하여 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동일하다.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이 구조적 무지, 치료할 수 없는 지식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매우 광범위한 사회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회철학 사상은 인간이성의 한계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모든 인간은 규칙을 따르는 동물이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고 또한 그들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무지의 늪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무지의 늪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들의 삶이 가능하냐?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안내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규칙이다. 행동규칙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가를 말해 준다. 이 행동규칙은 수많은 차량이 끊임없이 운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번잡한 교차로의 신호등과 비유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예컨대 차량의 수효, 차량 속도, 심지어 좌우의 차 운전자들이 어떤 기분으로 운전하고 있는가 등). 복잡한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어떻게 운전하여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공포의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어둠을 걷어 주고,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호등이다. 파란불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좌우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마음 놓고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란불은 좌우의 차량들이 지금 정지하고 있으리라는 기대 및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교통신호와 같이 행동규칙들은 인간의 구조적인 무지를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행사한다. 행동규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속에서 인간들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구조적인 무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교통신호가 필요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교통신호와 같이 인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규칙들(도덕률이나 법규칙 또는 관습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규칙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은 삶의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행동규칙에 의해 조종된다.

왜 그들이 규칙에 의존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규칙 없이는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규칙을 따르는 동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규칙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행동할 때만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전의 단계, 즉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규칙에 따라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인지된 것을 해석할 때에도 규칙을 따라 인지하고 해석한다.

인간들이 행동할 때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경우, 규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개개인들이 따르고 지키는 규칙들은 반드시 이들 자신에게 알려져 있거나, 또는 반드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키고 따르는 행동규칙들 중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묵적인 규칙들이다.

암묵적인 규칙들의 대표적인 예가 정의감, 법감정 등이다. 정의감이나 법감정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예컨대 정의로운 행동규칙들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규칙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들이 무엇인가를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다. 정의감이나 법감정은 어감과 마찬가지로이다. 언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 잘못을 언어학적으로 반드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들이 필요로 하고 또한 준수하는 규칙들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들도 역시 틀릴 수 있고,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동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목적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합리적이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특정의 행동을 취할 때, 그의 이 행동은 두 가지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목적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행동대안들 중에서 자신의 행동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행동이다. 이것이 목적 합리적인 행동국면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또 다른 국면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들은 무수히 많은 행동방식들 중에서 자신들의 가치관, 도덕률 또는 습관 등에 의해 특정의 행동방식들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배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목표에 부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도덕률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가치관이나 도덕률 또는 개인의 특성을 말해주는 기질을 우리가 '가치'라고 부른다면 인간들은 가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국면은 목적지향적인 행동국면과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다. 예컨대 목적지향적인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목적이 달성되면 그 행동은 쓸모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가치지향적인 행동은 당장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행동은 목적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이다. 가치지향적이라는 것

은 규칙을 따르는 행동국면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가치규범을 따라 행동하는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인간들의 행동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유전적인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해방되었다.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해 세 가지 행동국면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목적지향적인 행동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형성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목적합리적 행동은 가치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한다. 그 단적인 예를 들면 도로교통규칙의 존재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일종의 가치를 구현한 행동규칙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치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거대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오로지 유전적 행동국면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침팬지 사회와 같은 소규모 사회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원시사회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치합리적인 국면이야말로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분시켜 주는 중요한 인간 본성이다.

인류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기적이다. 인류는 계몽된 이기주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몽은 문화적 진화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3. 자생적 질서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삶에서 무질서 또는 혼란이 지배하여 질서가 없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일상적 활동마저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어떠한 목적도 추구할 수 없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란 상상할 수도 없고, 질서없는 세계는 의미도 없다. 따라서 질서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국가가 경제를 간섭해야만,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질서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질서를 “자생적 질서”라

고 말하고 있다. 이 자생적 질서 개념은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의 두 번째 구성요소이다.

자생적 질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형성되는 질서이다

우리가 경제계를 바라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원료공급자로서, 자본가로서, 생산자로서, 또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수요자로서 재화와 용역들을 공급하고 수요한다. 이러한 공급행위와 수요행위는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누가 시켜서 수요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공급을 될 수 있는 대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수요자들도 역시 자신의 수요를 공급자들이 원하는 바에 될 수 있는 대로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들이 상호간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서로 타인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행동조정과정이라고 부른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질서 잡는 주체 없이도 스스로 잡혀지는 질서, 또는 스스로 유지되는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는 고속도로의 차량행렬에 비유될 수 있다. 서로 모르는 낯선 자동차 운전자들이 각자 자기가 갈 곳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전기술을 동원한다. 그들은 사전에 서로 만난 일도 없고, 어떻게, 어떤 속도로 운전하자고 약속한 일도 없다. 그렇지만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으로 혼란 없이 차량행렬(질서)이 유지된다.

자생적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는 시장경제질서이다. 질서 잡는 주체가 없이도 시장경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잡혀진다.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신을 연상했던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물론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서 질서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고속도로의 차량행렬처럼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다. 그 질서의 모습은 우리의 인지역량에 의해 머리 속으로 재구성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구성이 사회과학의 진정한 과제이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와 대비되는 질서가 인위적 질서이다. 인위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는 간섭주의 경제질서와 같은 조직질서이다. 조직질서는 질서 잡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가 어떤 기업은 무엇을 전문화해야 하고, 어떤 다른 기업은 또 다른 무엇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원료공급자는 누구에게 원료를 공급해야 하고, 어떤 기업은 자동차 시장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기업은 철강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에 의해 질서 잡는 주체가 경제주체들의 행동들을 조정한다.

자생적 질서의 분업은 외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형성된다. 그리고 개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즉 재산과 소득의 분포도 역시 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간섭주의적 경제의 조직질서에서 분업은 질서 잡는 주체가 자신의 명령에 의해 경제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할당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재산과 소득의 분배도 질서 잡는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다. 요컨대 인위적 질서인 간섭주의 경제질서는 미리 작성된 계획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 그리고 그들 각각이 차지할 사회경제적 위치가 배정된 결과이다.

자생적 질서는 집단주의적 목표를 위한 질서가 아니다

자생적 질서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인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생적 질서는 특정의 구체적인 집단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생적 질서는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는 다목적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삶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는 평등질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생적 질서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배와 복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은 자생적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간섭주의적 경제질서

와 같은 조직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집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정한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든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는 이 공동의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을 이용한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없고, 오로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 목표만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공동의 목표와 부합되는 경제적 활동만이 허용된다.

국가의 경제정책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 예컨대 시장진입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개개인들이 금지적인 가치규범을 지킬 경우에만 형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규범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도 골라서 추구한다. 이때 가치란 특정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표들을 싫어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질서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목적합리적인 행동국면이 아니라 가치합리적인 행동국면이다. 왜냐하면 목적지향적인 행동은 행동목표가 달성되면, 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행동은 인간들의 거대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행동의 가치합리적인 국면이다. 이때 가치란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규칙으로 구현된다. 자생적 질서는 금지적 형태를 취하는 행동규칙들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킬 경우에만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시스템의 자생적 질서는 어떤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실체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금지적 형태의) 추상적인 행동규칙을 지킴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규칙들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개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이런 목적을 위해 행동하라거나 저런 목적을 위해 행동하라거나 하는 행동목적은 부과하지도 않는다.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특정한 행동방식들을 금지할 뿐이고, 금지되지 않은 행동방식들은 개개인들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금지되지 않은 행동방식들은 반드시 주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들은 개개인들의 혁신과 창조적 능력에 의해 새로이 개발될 수 있다. 시장시스템의 자생적 질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형성되고, 이들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위적 질서로서, 예컨대 간섭주의적 경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특정의 행동을 개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명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럴 때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저런 때에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명령이나 지시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특정의 행동방식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시장시스템은 순수한 경제적 기제가 결코 아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들은 종교규칙, 도덕규칙, 관습이나 관행과 같은 전통, 그리고 법규칙 등이 있다. 전자의 세 가지 행동규칙들은 도덕적 성격으로서 문화적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들 자체도 역시 자생적 질서라고 볼 수 있다. 하이에크는 이들이 문화적 진화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하이에크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규칙들은 자생적 질서의 진화와 함께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이러한 법규칙의 진화에 관한 하이에크의 이야기는 『하이에크 이야기Ⅱ』에서 다루기로 하자.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시장시스템을 순수한 경제적 기제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시장시스템을 도덕으로 부터 행방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도덕을, 예컨대 타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일종의 집단주의적 도덕으로 이해한다면,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시스템이 이러한 도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리고 순수한 경제적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처럼 두 가지 종류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가치는 소극적 성격을 가진 가치인 반면에,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은 연대나 사랑과 같이 적극적 성격을 가진 도덕적 가치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사회의 도덕적 가치일 뿐이다.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가 단순하고 작은 세계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자생적 질서가 조직질서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로 전환될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인위적 질서에서는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 그들은 인위적 질서가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질서를 잡는 사람은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누가 가장 잘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여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할 경우에만, 예컨대 관료나 정치가 또는 학자가 특정의 경제활동을, 특정의 경제주체에게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결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모두 한 장소로 집적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집적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식은,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교과서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은 지식뿐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이러한 지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특수한 상황에 관한 지식, 즉 국지적이고 개인과 관련된 지식 personal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갖고 담은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대부분 암묵적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국지적인 개인적 지식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 전체를 구성하는데, 이 지식이 오히려 사회의 전체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식은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도처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지식은 어떠한 정신에 의해서도 한 장소로 모아 놓을 수 없다. 컴퓨터에 의해서도 이 지식을 집적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전체 경제적 차원에서 아무런 쓸모 없는 지식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개개인들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질서의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얼마 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익명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들 스스로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익명의 타인들도 그 지식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질서는 무엇인가, 즉 지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국지적 및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지식이 어떤 내용의 지식인가를 알고 있고, 또한 이 지식이 어떤 목적에 유용한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위적 질서인 간섭주의 경제질서를 조직하여 사회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과제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들, 목적, 그리고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위치와 과제를 할당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개개인들에 똑같이 행동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생적 질서이고 또한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는 어떠한 정신에 의해서도 한 장소로 모아 놓을 수 없는 개개인들의 지식을 이들 각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장 시스템은 가격시스템을 통하여 지식의 전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하여 익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로써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더욱 더 현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간섭주의적인 경제시스템보다도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시스템이 지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탁월한 시스템이다.

자생적 질서는 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질서이다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관료나 정치가, 학자도 기업가나 노동자, 소비자와 똑같이 무지하다. 간섭주의 경제질서는 조종, 통제되는 일종의 조직 질서이다. 경제주체들은 관료나 정치가의 의지에 예속되어 있다. 그들은 관료나 정치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좇아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보다 현명해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료나 정치가들, 간섭주의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들도 무지하다. 이들의 지식을 좇아 행동하다가 기업도 도산하고 산업이 망가진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의 시장시스템은 이와 전적으로 다르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들의 행동방향을 정하는데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들은 특정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그러나 개개인들이 각자 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이 제공하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손수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생적 질서이다.

그런데 습득된 지식은 항상 옳은 지식이 아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틀린 지식일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습득된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그 어

는 누구도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이를 알려 주는 것이 자생적 질서이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알려 주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틀린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지식은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는 금전적인 손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전적 손실은 가격시스템을 경유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지식의 잘잘못을 밝혀 지식의 사용을 통제한다.

그런데 시장시스템은 간단히 성공과 실패만을 말해줄 뿐이다. 그것은 왜 어떤 지식이 옳고, 왜 다른 어떤 지식은 옳지 않은가를 말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은 개개인들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거나 창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시스템은 가격시스템을 거쳐 손익을 통하여 개개인들의 지식과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 위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시스템은 개개인들의 행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지식의 오류를 밝혀내줌으로써, 그리고 이 오류를 제거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통제한다.

이와 같이 자생적 질서는 구성원들이 가진 지식의 오류를 밝혀주고,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해야 할 압력을 그들에게 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명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장시스템에서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은 간섭주의적 경제질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질서의 내적인 통제력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나 정치가들에 의한 감시 감독을 받을 경우, 경제주체들은 이들과 똑같이 우매하게 된다. 그들의 통제는 차별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러나 시장질서는 개개인들의 지식의 오류를 밝혀냄으로써, 그것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의 오류는 시장질서의 유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바로 시장질서가 이러한 오류를 끊임없이 밝혀내주기 때문이다. 관료나 정치가들의 지식은 오류 투성이이고, 이러한 틀린 지식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할 경우 경제질서는 스스로를 유지할 능력이 상실된다.

이상과 같이 기술된 시장과정을 하이에크는 “발견적 절차”라고 부르고 있다. 발견적 절차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절차이다. 인간들이 완전히 알고 있다면 발견적 절차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질서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는 질서이다

시장시스템의 자생적 질서는 외생적인 쇼크와 파동(요동)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또한 시장시스템의 내생적인 변화들을 제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의 원천은 자생적 질서의 내적인 과정인 “발견적 절차”이다. 이 절차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식의 오류를 찾아 제거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테스트하고, 성공적인 지식은 확산시키는 절차이다. 이 절차가 시장시스템의 내적인 자율능력의 원천이고, 이 능력 때문에 시장질서가 스스로 조직되고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흔히 시장시스템의 자생적 질서를 자연적인 유기체에 비유하고 있다. 물론 인간사회의 자생적 질서는 자연 속에 있는 유기체와 비유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는 유기체의 내적인 규제능력을 연상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장시스템의 자생적 질서에는 경기변동, 특히 경기침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주체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변동을 상쇄시키기 위한 정치적 간섭주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간섭주의는 현대적인 거시경제이론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간섭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에 앞서, 경기변동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들 그리고 학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정책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은 “지식의 오만” 또는 “이성의 남용과 그 몰락”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자생적 질서는 열린 사회이다

열린 사회는 자생적 질서와 동일하다. 열린 사회라고 말할 때 ‘열려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좌우와 앞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단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이 말을 해석한다면 사회적 과정의 결과, 예컨대 소득·재산의 분배적 또는 자원의 배분적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특정의 분배정책적 혹은 배분정책적 목적(집단적인 목표)을 설정해 놓고 사회적 과정을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경우에는 열린 사회가 아니라 닫힌 사회이다. 닫힌 사회는 바로 조직질서와 동일하다. 특정의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질서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좌우와 앞이 이 집단적인 목표에 의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의 사회적 과정의 결과는 미결정되어 있고, 또한 열린 사회는 사회적 과정을 조종, 통제하여 달성할 집단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목표는 사회적 과정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자생적 질서도 열린 사회와 똑같이, 질서의 결과가 미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생적 질서는 특성의 분배정책적 및 배분정책적인 집단주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자생적 질서의 진로는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규칙은 행동동기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특성의 행동방식을 금지하는 추상적인 규칙이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규칙은, 목적과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의 진로는 열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린 사회의 성격과 자생적 질서의 성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를 열린 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 자생적 질서는 자유로운 사회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한 현실성이 있는 질서이다

인위적 질서는 인간들이 특성의 알려진 집단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는 목적합리적 질서이다. 그런데 인간 이성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사회 전체를 내버려 둔다면 질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 전체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경제의 진로를 정확하게 계획하여 이를 집단적인 목표에 적합하게 조종,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하려는 생각이 과거나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가들, 관료들 그리고 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적 질서는 인간들의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 없이도 형성되는 질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리학적, 화학적, 혹은 생태학적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도 질서잡는 주체 없이도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인간들의 사회인 자생적 질서와 일치된다. 물리학적 세계, 화학적 세계, 또는 생태학적 세계는 스스로 유지되는 질서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 스스로 조직되는 질서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흔히 비인류의 사회인 물리화학적 또는 생태학적 세계의 자연적 질서를 자생적 질서와 동일시하고 이 자연적 질서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인류의 자생적 질서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인식대상이 되고 있는 자연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화학적 요소들은 인간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인간 개인들 및 인간그룹이나 조직체들)과 전적으로 그 성격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물리화학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체들은 체계적인 학습, 사고, 전략적인 사유의 결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변동시키지 않고, 또한 그들은 새로운 행동방식을 창조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오늘날 흔히 ‘신과학’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또는 “복잡성 이론”을 인간사회의 자생적 질서에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고전물리학을 경제학에 적용하여 형성된 이른바 “주류경제학”이 저지른 잘못과 똑같다.

인간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연적 질서는 50,000세대 이상 동안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인간의 본능적인 유전적인 소망과 심리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의 형성은 오늘날 사회생물학의 인식대상이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은 마치 오늘날의 인류사회가 오로지 이러한 본능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의 본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처럼 다룸으로써, 인간행동의 문화적 패턴 그리고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능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질서에 대한 향수와 인간은 이성에 의해 사회질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 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 사회적 시장경제 사상, 또는 사회적 정의이다. 거대한 열린 자생적 질서를 제거하고 과거에 인류가 거쳐온 원시사회를 인간이성에 의해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어쨌든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제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위적 질서와 그리고 인간의 원시적 본능에 대한 향수를 기초로 한 자연적 질서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질서이다.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는 문화적 진화사상이 존재한다. 자생적 질서는 바로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인간이성의 사용과 관련해서 볼 때 인위적 질서사상은 지나치게 인간이성을 과대평가하는 사상인 반면에 자연적 질서사상은 인간들의 본능적 삶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문화적 진화사상과 자생적 질서사상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국면을 극복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자생적 질서사상은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이나 또는 자연적 질서로서 애착이나 애정을 기초로 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상은 인간들이 특성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진하여 구성하는 조직체들(예컨대 기업, 가게, 취미클럽, 지역적 그룹, 이익단체)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체들은 어디까지나

자생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것이지 자생적 질서의 상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들은 자생적 질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금지적 성격을 가진) 도덕적 가치들 및 마찬가지로 금지적 성격을 가진 법규칙들(민법과 형법)의 테두리 내에서 존재한다. 문화적 진화의 산물인 이러한 행동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들은 자진하여 구성한 조직체들을 통하여 공동의 목적이나 본능적인 소망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자생적 질서는 포괄적인 거대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거대한 자생적 질서인 것이다. 거대한 자생적 질서는 멀리 있는 이념적인 질서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부단히 사람들이 이 자생적 질서를 특정의 집단적인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간섭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4. 문화적 진화란 무엇인가

하이에크에 있어서 문화적 진화이론은 자생적 질서의 이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문화적 진화는 주제는 특정의 문화적 행동규칙과 사회제도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별과정이다.

문화적 진화는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의 전통과 관행, 도덕규칙 및 사회적 제도의 선별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타고난, 즉 세대간 유전을 통하여 전달되는 행동규칙의 선별과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제도와 관련된 문화적 진화사상은 다윈이 생물학적 영역에 진화사상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생겨났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진화사상은 생물학에서 전용된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미 다윈 이전의 진화사상은 도덕, 법, 언어, 시장 및 화폐 등의 생성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다윈은 이 사상을 생물학에 적용, 그 후 19세기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유능한 개체의 유전적 선별을 다루고, 그 대신 행동 사회적인 규칙과 행동방식의 선별적 진화, 즉 문화적 진화를 무시해 버렸다. 하이에크는 사회적 다윈주의 Social Darwinism의 오류를, 제도와 관행 보다는 개체의 선별로, 개체가 문화적으로 전달받은 능력보다는 타고난 능력의 선별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는 서로 전혀 다르다

하이에크는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의 공통점을 첫째로 선별원리에서 찾고 있다. 즉, 환경에 적응하여 인구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나 도덕규칙들이 선별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진화법칙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적응을 다루기 때문에 진화의 진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진화법칙을 찾아서 인류사회의 진로를 예측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이에크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문화적 진화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특성의 전달과정에 기초한다. 이것은 유기체의 유전적인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적인 다윈주의와 다르다. 생물학적 진화와 비교한다면 문화적 진화는 라마키즘Lamarckism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문화적 진화 속에서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양친들로부터는 물론 수세대에 걸쳐 살았던 정신적인 조상들,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행동규칙이나 지식을 습득한다.

셋째로, 문화적 진화에 있어서 선별과정은 그룹선별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에서는 개체선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컨대 그룹선별이란 개체들이 얻은 편익이 아니라, 그룹자체가 얻는 편익에 의해 문화적 진화가 조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선별론을 시장경제의 진화와 연결시킨다면, 시장경제가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지금까지 존립하게 된 것은 인구를 증대시키고,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구의 번식, 인구의 생존과 번영은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제도가 선택되거나 도태되는 선별원리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로,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전수되는 것은 제도를 형성하는 행동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진화를 제도의 진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 풍속, 도덕규칙, 법규칙 그리고 화폐와 같은 제도들이 문화적 진화의 대상이다.

이 밖에도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진화는 차이가 있다.

인류의 사회는 폐쇄된 원시사회에서 열린 거대한 사회로 진화되었다

폐쇄된 원시사회와 열린 거대한 사회의 구분은 흥미로운 구분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거쳐왔던 진화적 단계뿐만 아니라, 이 두 단계의 사회가 기초로 하고 있는 도덕시스

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농업, 도시 그리고 마침내 거대 사회를 개발하여 살아온 지는 겨우 10,000년 정도이다. 그러나 30~50명 정도의 무리를 지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사냥하고 채취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했던 기간은 이보다 100배 이상 더 길었다. 지구는 일만 년 또는 이만 년 전에는 천만 명 정도밖에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십 억의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시장경제질서의 존재이다.

원시사회의 삶의 형태는 어느 한 지도자의 명령하에서 알려진 공동의 목표(집단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엄격한 지배-복종을 뜻하는 질서였다. 개인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란 열린 사회로 진화된 사회에서만 비로소 전개될 수 있는 문명의 공예품이다. 폐쇄된 원시사회의 도덕적 감정은 유전적으로 고착되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전수된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을 기초로 한 질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사회의 자연적 질서이다.

거대한 사회와 소규모 사회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소규모 사회에는 공동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집단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거대한 사회에서는 공동의 구체적인 목적 대신에 공동으로 지켜야 할 추상적인 행동규칙이 지배한다. 요컨대 원시시대의 소규모 사회는 본능에 기초한 조직질서였다. 거대 사회는 문화적 진화에 기초한 자생적 질서이다.

원시사회에서 공동의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들이 조정되었는데, 이러한 조정메카니즘이 추상적인 행동규칙에 의해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과 협조하는 메카니즘으로 변동됨으로써, 인구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반대로 인구의 확장으로 인하여 조정메카니즘의 교체가 이루어져 비로소 확장된 인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에 따라 학습된, 문화적으로 전달된 행동규칙에 의해 유전적으로 타고난 본능적 감정이 억제되고 밀려났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하이에크에 의하면, 사적 소유권의 발전이었고, 이러한 발전과 함께 전통에 기초한 문화의 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학습되어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사회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데, 이 사회제도의 선별과정이 문화적 진화이론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화적 진화과정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적 진화과정은 행동규칙의 혁신과 모방 및 선별과정이다

중요한 사회제도, 관행 및 행동규칙들은 인간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이성에 의해 고안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 혹은 걸름과정의 결과이다. 문화적 진화의 대상은 모방 능력 및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습득된 특성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문화적인 진화의 걸름과정 속에서 다양한 행동규칙들이 경쟁하는데, 이 경쟁에서 승리한 행동규칙들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그룹 구성원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문화적 걸름과정은 그룹을 선별하거나 도태시킨다. 성공적인 제도나 관행 및 행동규칙들을 채용한 그룹들은 번영하고 확대된다. 그렇지 못한 그룹들은 도태되거나 축소된다.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의 선별원칙에 따르면, 그룹들에게 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보다 큰 확장가능성을 보장하는 도덕규칙들이 선별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독교가 존립하여 지금까지 그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적 소유권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기존의 문화적 규칙의 전달과 새로운 문화적 규칙의 생성을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행동규칙들은 모방을 통하여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모방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완전히 이해하지도 않은 채, 그 규칙들이 과거에 성공적이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을 모방한다.

그런데 새로운 행동규칙들은 그룹 내부에서 새로이 고안되고 모방되어 생겨난다. 새로운 규칙의 선별과정은 어느 한 그룹 구성원의 이탈행동과 함께 시작된다. 그는 전통적인 행동방식 대신에 새로운 행동방식을 고안한다. 이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룹으로 부터 쫓겨난다. 쫓겨난 그룹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혁신행동을 통하여 다른 구성원들을 유혹하고, 이로써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룹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관행이 전통적인 것보다 성공적이고, 그 혁신가가 그의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명망을 얻는다면, 이들은 그 혁신가를 모방하기 시작하고, 이로써 새로운 관행이 규칙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 규칙은 혁신과 모방과정 속에서 생성되고 정착된다.

문화적 진화는 관행들이, 이것을 채택한 그룹들에게 다른 그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관행들이 유지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의 성공과 효율성은 다른 그룹과 비교할 때, 이들을 실시하는 그룹의 성공

에 따라 측정된다. 이 성공은 그룹의 번영과 그룹 구성원의 증가에 의해 측정된다.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가 산업화 기간 동안 프롤레타리아를 부양한 것이지, 결코 이를 굶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경제성장이었다는 것이다. 봉건주의 하에서였다면 굶어 죽었을 프롤레타리아의 생존은 그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이다.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도덕은 전적으로 다르다

도덕, 윤리 및 전통개념은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에서 중심된 역할을 한다. 그는 도덕적 규칙을 진화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덕은 합리적으로 따져서 고안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와 자생적 질서의 결과이다. 도덕은 이성의 결과가 아니다. 또한 하이에크는 도덕을 신의 계시라든가, 신의 섭리라든가 하는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불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의 존재를 부인한다. 따라서 자연법의 의미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윤리를 반대하고 있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열린 사회의 도덕과 닫힌 사회의 도덕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닫힌 소규모 사회의 윤리는 연대와 이타주의의 본능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연대와 이타주의는 소규모 그룹의 구성원들을 염두에 두는 윤리이다. 이 윤리는 그룹 외의 구성원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조장한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의 도덕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본능을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 열린 사회의 도덕적 원칙은 사적 소유제도 및 가족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률로 구현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계약의 충실성, 소유권 존중, 책임의식 등이다.

열린 사회의 도덕은 자본주의 윤리이고, 닫힌 소규모 사회의 윤리는 사회주의 윤리이다. 문화적 진화는 자본주의 윤리, 열린 사회의 윤리가 과거의 원시 사회의 윤리를 밀어내는 과정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 복지국가, 분배적 정의라는 의미의 사회적 정의는 과거 부족사회 윤리의 부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적 구호는 문명의 진화에 역행하는 것, 따라서 반동적인 것이지 진보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열린 사회에서는 소규모 사회의 연대 모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사회 속에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인간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인간그룹들은 연대 모럴을 통해 형성된다. 인간들은 이 소규모 그룹 속에서 본능적인 감정과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그룹(동창회, 지역그

룹, 취미그룹, 종교그룹 등)이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면, 열린 사회에서 연대와 자선주의에 기초한 소규모 그룹은 정당화된다.

시장경제의 진화는 열린 사회의 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장경제의 도덕적 기초는 연대 모럴이 아니라 흔히 '정직성 규범'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럴이다. 연대 모럴은 함께 나누어 먹고, 위험을 함께 대처하기 위한 모럴이다. 정직성 모럴은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라, 약속과 계약은 충실히 이행하라, 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라 하는 등의 모럴이다. 이러한 모럴은 본능적인 연대 모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본능을 억제하는 도덕규칙이다.

이 도덕규칙은 어느 한 천재의 이성애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기초로 할 때 시장경제가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결코 어떤 천재적인 인간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도덕적 행동규칙들은 특정의 행동만을 금지하고, 여타의 행동들을 열어 놓고 있다.

어떠한 공동의 집단적인 목적 없이도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교환과 상업의 생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평화의 질서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장질서는 원시적인 폐쇄된 사회를 거대한 열린 사회로 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거대한 열린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시장질서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범세계적으로까지 확장된 분업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질서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거대한 열린 사회는 우리의 감각도구를 통하여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질서는 아니다. 인간은 비로소 과학이론에 의해 이 중간우주를 초월한 거대한 사회적 우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시사회와 같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사회과학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도구를 통하여 직접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질서와 같은 자생적 질서의 존재, 그리고 이로 인한 거대한 열린 사회의 존재는 바로 사회과학의 성립조건이다.

기독교는 열린 사회의 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열린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규범체계(예를 들면 소유권의 존중, 책임윤리, 계약과 약속의 충실성)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을 직접 충족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 욕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적 진화는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 소망을 거슬러 진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빈번히 인류는 이러한 추상적인 도덕체계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도덕체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설명에 의해 이를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그 도덕체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종교적 정당화는 도덕체계에 대한 존중심과 경외감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종교적 정당화는 도덕규범의 다음 세대로의 문화적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전통의 시간적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기독교가 자유로운 사회질서 및 시장질서의 기초가 되는 도덕체계에 대한 인간들의 경외감과 그리고 이 도덕체계의 시대적인 유지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기독교는 인류문명이 전개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조건들 중 하나이다.

이 종교가 바로 소유권 모럴, 정직성, 가족 모럴, 개인의 책임, 절약 등과 같은 모럴을 가르쳐 주었고, 이로써 시장질서와 자유로운 사회질서의 확산과 유지가 가능했다. 기독교는 2천여 년 전, 이미 사적 소유권제도가 완전히 개발되어 있었던 지역에서만 생성, 발전되었던 것이다. 사적 소유와 가정을 선호하고, 이들을 중시하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열린 자생적 질서의 시장시스템이 유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지난 2천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종교들은 사적 소유권과 가정을 중시하는 종교뿐이다. 왜 기독교와 같이 이들을 중시하는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적 진화의 선별기준, 즉 어떤 제도가 선별되거나 도태되는 기준은 인구의 증가와 인간그룹의 번영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약성서 『창세기』에 “너희 자손을 증가시킬지니라”라는 구절이 바로 문화적 선별기준을 구현한 구절이다. 기독교가 세계종교로 진전된 것은 바로 이 선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적 소유권과 가정에 대한 경외감을 강화시키고, 이로써 가능하게 된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하이테크 이야기 I

1997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2019년 7월 31일 1판 2쇄 발행

저자_민경국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